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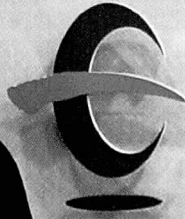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서로

비즈니스넷보기

(주)이지바이오시스템 해외사업부



도드럼 B&F



EASY BIO System, Inc.

*Better world.
Through better way.*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Better World through Better Way"

>>> [취재 _ 현시영]

▲ 주광석 대표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Better World through Better Way”

세계최초로 개발된 엔도파워-β, 너의 힘을 보여줘!

세계 최초로 개발된 옥수수-대두박 전용 효소제 엔도파워-β, 너의 힘을 보여줘!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은 1988년에 설립되어 10년만인 1999년,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되었다.

이지바이오 해외사업부는 주광석 해외 사업대표가 진두 지휘를 하고 있다. 현재 이지바이오 해외사업부의 대표적인 제품은 엔도파워-β 라는 제품이다. 엔도파워-β 는 이지바이오시스템과 세계적인 효소 전문기업인 캐나다의 GNC bioferm과 공동설립한 Esys Bioferm에서 개발한 복합효소제품으로 사료원료 내 존재하는 각종 항 영양인자를 분해함으로써 사료의 영양소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복합효소제품이다. 실제로 출시된 것은 5년이 지났지만 해외로 본격적인 판촉 활동을 벌이게 된 것은 2년 정도가 되었고, 사실상 올해가 이지바이오 해외사업부의 본격적인 해외 개척의 원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는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미국, 브라질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주광석 대표는 97년부터 약 10여년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맡았다고 한다. 현재 주광석 대표는 국내에서 Medipig Korea Inc.(실험용 SPF미니돼지 생산 www.medipig.com)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이지바이오 필리핀 대표, 필리핀 도드람 양돈장 대표를 맡고 있다. 이지바이오 필리핀에서는 현재 엔도파워-β 가 Endonase 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제적인 등록상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 해외사업부 주광석 대표와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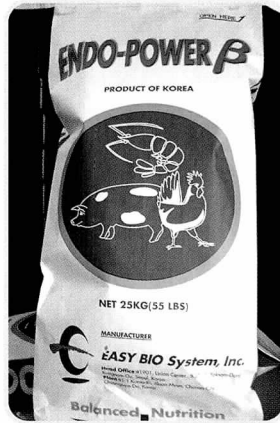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와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엔도파워 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다.

주광석 대표는 효소제 시장이 꽤나 크다고 말하며, 먼저 엔도파워-β 의 효과에 대해 PPT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첫 PPT화면은 동물에서 실제 대사에 이용하는 대두박과 옥수수의 총 에너지와 대사에너지 사이의 불일치 그래프였다.

그래프에서는 옥수수과 대두박에서 이용되는 총 에너지와 대사에너지를 %로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대사에너지의 쓰임이었다. 주광석 대표는 가축에 있어서 대사에너지는 총 에너지보다 더 정확한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그래프에서 옥수수는 총 에너지가 3900Kcal/kg, 대사에너지는 3400Kcal/kg을 나타내고 있었고, 대두박은 총 에너지 4200Kcal/kg, 대사에너지는 2400Kcal/kg 으로 87%가 에너지 대사에 쓰이는 옥수수와 달리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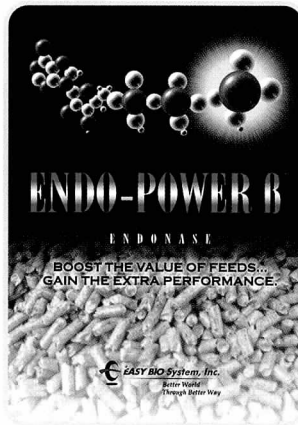
두박은 실제 가축의 에너지 이용에 쓰이는 것이 57%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옥수수와 대두박 모두 섭취하는 에너지에 비해 실제 쓰이는 에너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주광석 대표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런 당연히 소화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효소제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사실은 엔도파워가 세계최초로 개발된 옥수수, 대두박 사료의 이용효율을 높여 주는 첫 효소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었던 효소제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개발한 것으로 주로 밀(Wheat), 보리(Barley) 같은 것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상황에서는 보리와 밀이 주된 생산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 아시아 같은 경우, 옥수수-대두박 배합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부시 정부 이래 차세대 연료인 에탄올 생산이 현재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고, 에탄올 생산원료인 옥수수가 대량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를 포함한 곡류 가격 상승에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사료용 옥수수 부산물로 생산되는 옥수수 주정박(DDGS)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엔도파워는 DDGS의 소화에도 효과적인 효소제임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이지바이오 시스템은 현재 미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판매를 확산하고 있

다고 한다.

주광석 대표는 PPT화면을 보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엔도파워-β에 함유되어 있는 galactosidase와 galactomannanase의 기작에 관한 설명이었다. “실제로 체내에 효소가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세포벽들은 단백질 분해효소나 탄수화물 분해효소가 분해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단백질 분해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이럴 경우 galactosidase와 galactomannanase가 들어가서 결합을 깨주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내생효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교적 자세한 설명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어 주광석 대표는 전체환원당에 관한 PPT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은 효소제가 얼마나 활동 하느냐는 효소를 넣어가지고 결합이 깨졌으면 결국 단당류로 분해되어 당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걸 측정

해서 이 효소가 체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죠. 이것은 전체환원당의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한번 보세요.”라고 말했다.

환원당 테스트는 사료성분에 결합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실제 엔도파워-β와 다른 업체들의 효소제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니, 한눈에도 엔도파워-β의 전체환원당 수치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광석 대표는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엔도파워-β는 일당 증체량과 사료효율을 개선하는데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Better World through Better Way”

세계최초로 개발된 엔도파워-β, 너의 힘을 보여줘!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추세가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엔도파워-β를 사료에 첨가할 경우 실제 가축 체내에서 쓰여지지 않는 영양소를 발굴해 에너지에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준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겁니다.”

Global brand, Global capability

주광석 대표는 현재는 미국과 FTA가 타결되었지만, 앞으로 유럽, 중국과 같은 나라와 계속 FTA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세계화는 선택이 아닌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AI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축산농가들이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이지바이오 시스템의 모토가 Better World through Better Way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와 유통망으로 앞으로 축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상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경험과 지식, 열정과 꿈을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료회사는 물론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브라질과 미국에까지 판매망을 개척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주광석 대표는 거래하고 있는 나라마다 체계적 인적 네트

워크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경우 2002년 10월 이지바이오 필리핀을 설립해 2003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지 전문가들의 발굴과 그들의 노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매년 국내에 해외의 인맥들을 초청해 회사를 알리고 한국의 문화도 알려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후엔 사람들과 끈끈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비 오는 날 화단에 물주는 사람도 있다는 말?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그런 비효율적 일을 하는가.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곳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루 하루의 일당만 받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킨 일만 하면 일당이라도 받는데 비가 온다고 물을 안주면 그건 그냥 일을 안 한 것 밖에는 안되기 때문인 거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되어 현지의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계를 무대로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지바이오 시스템 해외사업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취재를 마쳤다.

이런 회사가 있기에 아직 한국축산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㉟



▲ 해외잡지에 게재된 엔도파워-β.